발해 8위제에 관한 검토*

강 성 봉**

1. 머리말
2. 발해의 군제와 8위제
3. 8위제의 성립시기
4. 8위의 편성과 역할
5. 맺음말

1. 머리말

발해는 698년에 현재 길림성 돈화시에 있는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한반도 북부와 만주일대 및 연해주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한 범주로 자리매김하였다. 발해가 오랜 시간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군사력을 들 수 있다. 발해의 군사는 외침을 대비하고 영토확장을 위한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지배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 이 논문은 2006년 2월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渤海의 8衛制 硏究」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www.kci.go.kr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발해의 군사는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었을까.

발해는 넓은 영역에서 半農半獵 및 漁撈에 기초한 사회경제 생활을 하였다.[1] 또한 발해는 지배층인 소수의 고구려인과 피지배층인 여러 말갈족으로 이루어진 다종족 국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발해의 지배층은 안정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군사제도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발해 군사제도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당시의 국가 지배체제나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발해의 군사제도 연구는 사료부족으로 인하여 간략한 소개만 이루어졌다.[2] 『신당서』 발해전의 사료를 근거로 8衛[3] 또는 10衛[4]가 있었다는 두 견해로 나뉜다. 이것은 사료해석에 있어서 구두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발해의 군사조직이 당의 16위와는 달리 왜 10위 또는 8위의 편제로 이루어졌는지, 성립시기와 각 위들의 편성과 역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해의 병력충원과 관련해서는 당과 마찬가지로 부병제가 실시되었다는 견해[5]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견해[6]가 있었다. 전자는 727년 발해가 1차로

---

1) 발해의 자연지리구역은 크게 ①소흥안령과 삼강(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평원지구 ②장백산지구 ③시호테산지구 ④송눈평원지구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경제구역은 다시 ①서부의 농업지역 ②중부의 농업 및 어업·수렵구역 ③동부·북부의 어업·수렵 구역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설명되기도 한다(王承禮 저·宋基豪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pp.103~107).

2) 鳥山喜一, 「渤海國王の制度と文化」,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박시형, 「발해의 국가제도」,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Ⅰ-古代篇』, 一潮閣, 1982;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987; 崔茂藏, 「渤海의 政治와 對外關係」,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한규철,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10 발해, 국사편찬위원회, 1996; 장국종(사회과학원), 『발해국과 말갈족』, 도서출판 중심, 2001.

3)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7~358; 주보돈, 앞의 책, 1994, p.356.

4)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卷15, 職官考, 1934;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p.82~83; 박시형, 앞의 책, 1979, pp.131~134;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987, pp.147~148; 崔茂藏, 「渤海의 政治와 對外關係」,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0~152; 姜華昌·沈仲衡, 「試論渤海國的軍事制度」, 『高句麗渤海研究集成』 4, 1997, pp.314~316; 장국종(사회과학원), 앞의 책, 2001, pp.72~73.

www.kci.go.kr

일본에 德周를 果毅都尉로, 舍航을 別將으로 파견한 것에 근거를 둔다.[7] 이것은 발해의 文武散官 및 職事官의 명칭이 당제와 유사한 점에 근거한 것이다.[8] 후자는 발해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종족적인 차별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병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발해의 군사조직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 중앙군에는 모병제로, 지방군은 村長인 首領을 지휘관으로 하고 촌락민을 兵員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편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9] 그러나 구체적인 모병선발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해가 반농·반렵 및 어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닌 점을 생각한다면 병농일치의 군사편제는 재고될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발해의 군사제도와 관련한 사료부족의 문제를 비교사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발해 전후시기에 존재하였던 왕조들과 동시기에 인접하였던 당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해 군사제도의 면모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국중심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발해사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을 지양하면서[10], 객관적인 발해의 군사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10위설과 8위설을 재검토하고, 당·요·여진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해의 군사조직이 8위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

5)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83; 崔茂藏, 앞의 책,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1~152; 姜華昌·沈仲衡, 앞의 논문, 1997, pp.314~316; 鈴木靖民 저, 임상선 편역, 「발해의 首領制」,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1, pp.128~129.

6) 李基白, 앞의 책, 1982, p.358.

7) 『續日本紀』 卷10, 神龜 5年 正月, "甲寅 天皇禦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幷方物 其詞曰…… 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 遊將軍果毅都尉德周 別將舍航等卄四人."

8) 당은 전국에 折衝府를 두고 이를 부병제의 기본단위로 하여 각 府에 折衝都尉, 左·右果毅都尉, 別將, 兵曹, 參軍 각 1인, 그리고 校尉 5인을 두었다. 『續日本紀』에 나타난 과의 도위·별장은 모두 절충부의 속관이기 때문에 발해가 당과 유사한 부병제를 실시하여, 전국 각지에 절충부를 두고 10위 내지는 8위 아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해의 군사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당의 무관직 명칭만의 비교보다는 그 내용의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6~358.

10) 중국학계에서는 발해의 군제가 당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제와 더불어 부병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한학계에서는 발해를 한국사의 범주에 넣으려는 선입관에 근거하여 부병제 실시여부를 부정하였다.

www.kci.go.kr

또한 8위의 성립시기, 편성과 운영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발해 군사제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발해의 군제와 8위제

발해의 군사제도 연구는 그동안 아래의 사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1. 武員에는 左猛賁衛·右猛賁衛·左熊衛·右熊衛·左羆衛·右羆衛·南左右衛·北左右衛가 있으며 각각 大將軍 1人과 將軍 1인이 있다.(『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A-2. 太祖 8년(925) 9월 丙申, 渤海將軍 申德 등 500인이 來投하였다. 庚子, 발해의 禮部卿 大和鈞, 均老司政 大元鈞, 工部卿 大福謨, 左右衛將軍 大審理 등이 백성 1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高麗史』 卷1, 世家1)

A-3. 太和 6년(832) 12월 戊辰, 內養 王宗禹가 渤海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발해가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 그리고 120司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그 모습을 그려서 바쳤다.[11](『舊唐書』 卷17下, 本紀, 文宗下)

사료 A-1은 발해 군사제도의 편제를 보여준다. 이 사료는 대이진 시기(830~857)에 발해를 다녀갔던 당 行軍司馬 張建章의 견문기인 『渤海國記』 내용 중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12] 주목되는 것은 사료 해석에 따라 군사제도의 편제가 8위설과 10위설로 나뉜다는 점이다. 위의 사료 중 좌맹분위·우맹분위·좌웅위·우웅위·좌비위·우비위의 사료해석에는 일치를 보이지만, '남좌우위'와 '북좌우위'의 사료해석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8위설은 '남

11) 한편, 당에서는 左右衛·左右驍衛·左右武衛·左右威衛·左右領軍衛·左右金吾衛·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의 16衛와, 左右羽林軍·左右龍武軍·左右新武軍·左右神策軍의 8軍이 있었다(『唐六典』 卷24 諸衛; 『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2) 장건장의 墓誌에 따르면 유주절도사의 휘하에 있던 그는 太和 7년(833) 발해에 사신으로 가서 太和 9년(835)에 귀국 후 『渤海國記』를 저술하였다고 한다(河上洋 저·임상선 편역,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1991, p.236).

www.kci.go.kr

좌우위'와 '북좌우위'를 독립된 하나의 위로 보고 있으며, 10위설은 이를 '남좌위'·'남우위'·'북좌위'·'북우위'로 보고 있다.

사료 A-2는 8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사료 A-1에서 문제가 된 '좌우위'가 독립된 위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로 내투한 대심리의 관직명이 '좌우위장군'이기 때문에 8위설을 주장하는 것이다.[13] 반면 10위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좌우위장군이 좌위장군과 우위장군의 겸임일 개연성도 있고, 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좌우위'가 독립된 위의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한다.[14] 또한 10위는 연원적으로 5개였으며, 좌맹분위·우맹분위가 맹분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여 다른 위들도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15] 하지만 위의 견해들은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사료해석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사료 A-3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왕종우는 당 사신으로서 발해에 들어갔다가 太和 6년(832) 12월에 당으로 귀국하였다. 이때 발해의 군사조직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당 조정에 보고하였다. 발해가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 120사 등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종우의 이러한 보고는 사료 A-1에서 보이는 발해 군사조직의 명칭과는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사료 A-3은 두 개의 위가 누락된 것이라 하여 10위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16] 그러나 왕종우가 당 조정에 발해의 군사조직을 그림까지 그려서 보고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한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 A-3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에 관하여 당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에서는 장안성의 大明宮을 호위하는 군영을 左右三軍이라고도 하는데, 좌우신책군은 삼군의 하나이다. 좌우삼군은 北衙三軍이라고도 하는데, 南衙(皇城)에 배치된 16위가 전국에

13)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7~358.
14)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0~151.
15) 이러한 견해는 당의 16위와 관련없이 고구려 5部의 군대와 연관을 짓는 경우라 할 수 있다(장국종, 앞의 책, 2001, pp.72~73).
16) 박시형, 앞의 책, 1979, p.132.

www.kci.go.kr

서 번상하는 부병에 의해 편성된 정규군인데 반해, 이는 황제 직속의 근위군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17] 때문에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은 발해에서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18] 주의할 점은 발해에서는 당의 경우와는 달리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을 별개로 편제한 점이다. 이것은 발해가 당의 군사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해 나름대로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편제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0사와 관련해서는 발해 황성에 존재하는 중앙관청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120이라는 수가 중앙관청수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19] 그러나 사료 A-3을 해석함에 있어서 官署의 증설이 아닌 황성의 관아 및 군대배치도로 본다면 120사는 발해의 중앙관청으로 이해된다.[20]

사료 A-3은 사료 A-1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두 사료는 830년대의 발해 군사조직을 표현한 기사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군사조직이 아닌 동일한 군사조직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A-3은 왕종우가 발해의 군사조직을 당 조정에 보고함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 당의 군사조직명칭을 차용하여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료 A-3을 통하여 당시 발해의 군사제도에는 좌신책군, 우신책군, 좌삼군, 우삼군과 같이 당 군제의 명칭을 차용한 8개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1, A-3은 수치상 8개의 군사조직으로 일치를 나타낸다. 사료 A-1의 좌우맹분·웅위·비위를 사료 A-3의 좌우삼군으로, 사료 A-1의 남좌우위, 북좌우위를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으로 연결시켜보면, 당시 발해의 군사제도가 8위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위 내지는 8군과의 연관성을 지니는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

17) 徐松 撰·愛宕元 譯註, 『唐兩京城坊攷』, 平凡社, 1994, pp.38~39.

18) 이와 관련하여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사료 A-1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987, p.98)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p.82~83; 酒寄雅志,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6, 1979, p.28; 魏國忠·朱國忱, 『渤海史稿』,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p.76).

19) 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987, p.98.

20) 金鍾福, 「渤海 上京城의 성립과 구조」, 『한국의 도성』, 서울학연구소, 2003, pp.131~134.

www.kci.go.kr

B. 隋『北蕃風俗記』에 이르기를, 처음 開皇 연간(581~600)에 粟末靺鞨이 高句麗와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厥稽部의 우두머리 突地稽라는 자가 忽賜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步括利部 등 무릇 8部의 勝兵 수천인을 거느리고 扶餘城 서북쪽으로부터 部落을 이끌고 關內(隋)에 투항하였으므로 柳城에 살게 하였다.(『太平寰宇記』 卷71, 河北道 20, 燕州)

사료 B는 발해의 건국 이전에 속말말갈의 추장이었던 돌지계가 고구려의 압박을 피해 집단적으로 수에 투항하였던 기사이다. 고구려는 583년 돌궐이 수에게 격파되자 속말말갈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에 패한 속말말갈의 일부집단은 수로 망명하였다. 속말말갈의 궐계부 우두머리인 돌지계는 홀사래부, 굴돌시부, 열계몽부, 월우부, 보호뢰부, 파해부, 보보괄리부 등 여타 7부를 포함한 8부를 대표하여 勝兵 수천인을 인솔하여 수에 망명하였다. 6세기 말~7세기 초 속말말갈로 불리는 지역집단 안에는 다수의 부가 존재하였고, 각각의 부에는 군대가 있었다.[21] 특이한 점은 돌지계가 이끌었던 궐계부를 중심으로 8개의 부가 연합적 행동을 취하는 점이다. 평상시에는 각각의 독립된 부로 존재하다가 유사시에는 8개의 부들이 궐계부를 중심으로 연합적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말갈의 군사편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는 목축과 사냥이라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락의 사회편제가 곧바로 군대의 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속말말갈의 여러 부 중에서 돌지계가 이끌었던 8부는 사회적 편제인 동시에 군대가 징집되기도 하는 군사적 편제가 될 수 있다.[22] 한편, 거란에 있어서도 8부의 존재는 확인이 된다.

C-1. 顯祖(獻文帝465~471)때에 莫弗紇 何辰을 使者로 보내 奉獻하여 諸

21) 혹수말갈은 16부로 이루어졌다(『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靺鞨). 따라서 속말말갈 역시 휘하 수십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1981, p.11).

22) 이와 관련하여 돌지계가 이끌었던 8부는 小部로, 이러한 8부가 연합체로 된 후에는 大部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權恩姝, 「渤海의 靺鞨服屬과 支配」,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9).

www.kci.go.kr

國의 末席에 앉아 饗宴을 받았다. (使者가) 돌아가 北魏의 훌륭함을 말하니 (契丹人들은) 마음으로부터 (北魏의 德을) 흠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北의 群狄은 이 말을 듣고 臣服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悉萬丹部, 何大何部, 伏不郁部, 日連部, 羽陵部, 匹絜部, 黎部, 吐六于部 등은 각각 名馬와 文皮를 가지고 天府에 入獻하여 마침내 이들이 朝貢을 구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魏書』 卷100, 列傳88, 契丹)

C-2. (契丹은) 勝兵이 43,000명이며 8部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만약 (군사의) 徵發이 있으면 여러 部에서는 모두 반드시 合議를 해야 하므로 독단적으로 擧兵 할 수 없었다. 狩獵은 部別로 행하였으며 戰爭은 각 部들이 함께 수행하였다.(『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契丹)

사료 C-1은 5세기 후반에 거란의 여러 부족과 북위와의 조공기사이다. 이것을 통하여 거란은 실만단부, 하대하부, 복불욱부, 일련부, 우릉부, 필혈부, 려부, 토육우부의 8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료 C-2를 통하여 거란은 유사시에 諸部族長이 모여서 전쟁에 따른 동원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하지만, 평상시에는 각 부족이 독립된 단위로 수렵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23]

다음으로 속말말갈 추장 돌지계의 아들인 이근행이 당의 군사와 함께 평양에 이르러 8營을 설치한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D. 12년(672) 가을 7월에 唐나라 장수 高侃이 군사 1만 명, 李謹行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일시에 平壤에 이르러 8營을 설치하고 주둔하였다.(『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사료 D는 이근행이 이끈 말갈의 군대가 8영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말갈의 사회편제 및 군사편제에 일면을 알려 준다.[24] 말갈의 군대는 다른 왕조

23) 김영하는 거란 8부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유목·수렵사회에서 차지하는 수렵과 전쟁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지속적인 군사훈련이 일치하는 현상을 농경사회와는 다른 특징으로 보았다(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p.110~135).

24) 참고로 고려 명종 8년(1178)에도 금의 군대가 8개 부대로 편성되어 來屯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高麗史』 卷19, 世家19, 明宗 8년(1178), 11月, "是月 金遣八將軍兵來屯義州關外").

www.kci.go.kr

의 지배통치를 받더라도 전투참여에 있어서는 항상 독자적인 부대편성으로 구성되었다. 즉 고구려에서도 말갈의 군사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구려인으로 지휘관을 임명한다고 하여도 부대편성은 토착적인 말갈의 군사편제로 전투에 참여시키고 있었다.[25] 따라서 사료 D에 나타나는 8영은 토착적인 말갈의 군사편제가 그대로 軍營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26]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란의 8부, 속말말갈의 8부·8영은 발해의 8위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해의 8위는 삼림이 펼쳐져 있는 만주 내지는 연해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군사조직의 편제로 볼 수 있겠다.[27] 발해는 말갈의 토착적인 8영 내지는 8부의 요소 위에 당의 위제를 변용하여 군사조직인 8위를 편성하였을 것이다.

---

25)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pp.324~336.

26) '營'과 관련해서는 여진사회의 구성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삼림에서 수렵생활을 하던 수렵인이나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로인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기위해 수시로 이동해야 하므로 한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 따라서 2·30人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막사를 한곳에 세우고 공동 사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을 "Tatan"이라고 하는데 Tatan은 수렵사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다시 이것이 연합하여 정치적 세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Aiman(部落 또는 部:니루)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진의 부락구성은 사냥하고 이동하는 생활의 단위가 되었으며, 이것이 군사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는 곧 군대의 편제로 전환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金의 군사제도인 猛安謀克과 淸의 군사제도인 八旗制의 기원은 위와 같은 수렵사회의 성격과 관련된다(金九鎭, 『13~17C 女眞 社會의 硏究 - 金 滅亡 以後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p.287~291; 徐正欽, 「明末 建州女直과 八旗制의 起源」, 『歷史敎育論集』 2,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981, 179~182).

27) 그렇다면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의 숫자 8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이 간다. 먼저 '8方位'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목사회나 수렵 및 어로사회에서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영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영을 세워 주둔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방어체계를 위하여 동·서·남·북의 4方과 4隅인 동북·동남·서북·서남을 포함하는 '8방'으로 방어와 경계의 임무를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심양고궁에 나타나는 八旗亭이 참고가 된다. 심양고궁의 건축배치는 東路·中路·西路로 나누어지는데, 동로에는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진 大政殿과 '八'字로 만들어진 양쪽 길 위에 左翼王亭·右翼王亭을 필두로 팔기정이 배치되어 있다. 이 팔기정은 여진족의 수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의 군사제도인 팔기제와 상관되는 것으로 말갈족과 여진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建築藝術全集』 3,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9, pp.1~26).

www.kci.go.kr

3. 8위제의 성립시기

발해의 군사조직인 8위는 언제 성립되었을까. 건국초기에는 전반적인 체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사제도에 관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대 무왕대 이후에는 견당사의 파견이 늘어나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받은 견당사들이 자주 나타난다. 아래의 〈표 1〉은 무왕대에 당으로 파견된 견당사 중에서 무관직을 제수받은 경우만을 한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武王代 遣唐使의 唐 武官職 授爵

	時 期	遣唐使名	武散官名	職事官名	唐 官品
1	武王 3년(721) 11月 己酉	靺鞨大首領		折衝	正4品上~正5品下
2	武王 4년(722) 11月 辛未	大臣 味勃計		大將軍	正3品
3	武王 6년(724) 2月 己巳	臣 賀作慶	遊擊將軍		從5品下
4	武王 7년(725) 4月 甲子	首領 謁德		果毅	正5品下~從6品下
5	武王 7년(725) 5月	王弟 大昌勃價		左威衛員外將軍	從3品
6	武王 8년(726) 4月 乙丑	長子 大都利行		左武衛大將軍員外置	正3品
7	武王 10년(728) 9月 壬寅	蔚夫須計		果毅	正5品下~從6品下
8	武王 11년(729) 2月 甲子	王弟 大胡雅	遊擊將軍		從5品上
9	武王 11년(729) 8月 壬寅	王弟 大琳		中郎將	正4品下
10	武王 12년(730) 2月 戊寅	大首領 智蒙		中郎將	正4品下
11	武王 12년(730) 5月 己酉	烏那達利		果毅	正5品下~從6品下
12	武王 13년(731) 2月 己未			將軍	從3品
13	武王 13년(731) 10月 癸巳	大取珍		果毅	正5品下~從6品下
14	武王 19년(737) 4月 丁未	大臣 公佰計		將軍	從3品
15	武王 19년(737) 8月 戊申	大首領 多蒙固		左武衛將軍	從3品

* <표 1>은『冊府元龜』卷974・975, 外臣部, 褒異1・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www.kci.go.kr

〈표 1〉을 살펴보면, 무왕대에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받은 계층은 왕자·왕제·대신·수령 등의 지배층들이다. 이들은 朝貢·賀正·宿衛 등을 목적으로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당의 정3품에서 종6품에 해당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다.[28] 당으로부터 수여받은 무관직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折衝, 果毅와 같은 직사관을 수여받는 경우이다. 1번의 말갈대수령이 제수 받은 절충은 당에서 정4품상~정5품하의 품계에 해당되고, 4번 수령 알덕이 제수 받은 과의는 당에서 정5품하~종6품하의 품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해에서 대수령과 수령의 서열이 확인이 되며, 또한 이를 통해 수령층이 견당사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대체로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29] 7, 11, 13번의 견당사들도 발해에서의 정확한 지위는 알 수 없지만 당으로부터 과의라는 직사관을 제수 받았으므로 대체로 수령급의 지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당의 16위에 속하는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을 제수받은 경우이다. 먼저 5, 6, 15번의 견당사들은 각각 좌위위원외장군, 좌무위대장군원외치, 좌무위장군을 당으로부터 제수 받아 좌위위 내지는 좌무위에 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 9, 10, 12, 14번의 경우에는 단지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만을 당으로부터 제수 받아 당의 16위 중에서 어느 위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을 제수 받은 견당사들은 발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제, 왕자, 대신, 대수령의 신분으로 수령과 단지 臣으로 표현된 지위계층보다는 신분적 우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당으로부터 무산관만을 제수 받는 경우이다. 3번의 신 하조경과 8번의 왕제 대호아는 당의 품계로 종5품하에 해당되는 산관만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

28) 〈표 1〉의 5, 6, 8, 9번의 견당사들은 발해에서의 신분이 왕제 및 왕자의 지위에 있는 왕족으로서 조공은 물론 숙위를 행할 목적으로 당에 파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다만 무왕 대에 대수령의 지위에 있는 견당사들은 〈표 1〉에 1번의 절충과 같이 당으로부터 절충부에 속하는 최고무관직을 제수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당의 16위에 해당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을 경우에는 10번의 중낭장, 15번의 좌무위장군과 같이 최하 중낭장급 이상의 무관직을 제수 받았다.

www.kci.go.kr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무왕 대에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 받은 견당사들은 좌위위, 좌무위와 같은 당의 16위제는 물론, 절충·과의와 같은 부병제의 양상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당사들은 발해로 귀국한 후에는 국내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사제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체제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0] 그것은 이후 당의 선진문물을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정비를 실시하는 문왕대의 체제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왕 대에는 무왕의 무력정복이 일단락되면서 내부 통치에 힘을 기울여 국가 기틀을 확립하던 시기이다. 문왕은 문치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31] 먼저 중앙정치기구로는 문왕 대 후반부터 政堂省, 司賓寺가 견일사의 관직명에 나타난다.[32] 그것은 적어도 이 시기부터 기존의 관직체계에서 중국식 관직체계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33] 지방제도에 있어서는 府州의 명칭이 문왕대부터 나타나기 시

30) 권덕영은 신라에서도 견당사는 주로 진골과 6두품 출신이 수행하였으며, 견당사의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대부분이 特進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견당사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 6명이 왕이 되었고, 그 외 사람들도 각기 골품제의 테두리 내에서 上大等·侍中·兵部令·都督·將軍·執事侍郎·翰林學士 등의 높은 관직을 역임하여 국내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춘추가 당 태종을 만나기 위하여 수차례 당의 궁성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당 衛軍의 형세와 활동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이후 신라의 侍衛府를 三徒로 개편하는 등의 관제개혁을 실시한 점을 들고 있다(權悳永,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pp.260~274).

31) 이것은 문왕이 당에 사신을 자주 파견한 데에서도 짐작된다. 그는 57년 동안에 61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고, 많을 때는 한해에 4차례 내지 5차례나 파견하였다(宋基豪, 앞의 책, 1995, p.107).

32) 『續日本紀』 卷24, 天平寶字 6年(762), 10月 丙午朔, "正六位上伊吉連益麻呂等 至自渤海. 其國使紫綬大夫行政堂左允開國男王新福已下廿三人 相隨來朝"; 『續日本紀』 卷34, 寶龜 7年(776) 12月 乙巳, "渤海國遣獻可大夫司賓少令開國男史都蒙等一百八十七人"; 『續日本紀』 卷35, 寶龜 10年(779) 正月 壬寅朔, "天皇禦大極殿受朝 渤海國遣獻可大夫司賓少令張儒壽等朝賀."

33) 727년 제1차 견일사부터 759년 제5차 사절까지 발해사신들은 무관으로 구성되었다가, 762년 제6차 사절 이후에는 문관으로 바뀌었다. 이때의 문관들은 政堂省, 文籍院, 司賓寺의 관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宋基豪, 앞의 책, 1995, pp.108~114). 또한 문왕 大興 3년(739) 일본에 파견한 발해사신 已閥棄蒙의 관직은 수령이었으나 이후의 발해사신들은 수령의 관직이 사라지고, 문산계 관직들이 파견되었다. 이 사실로 발해의 정치제도의 정비가 문왕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www.kci.go.kr

작하였다.[34] 또한 문왕대에는 수도를 상경과 동경으로 천도하여, 종래의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고구려식 도성체제에서 당의 장안성과 같은 평지성의 도성체제를 받아들였다.[35] 이와 같이 발해가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평지성을 건축하였다면,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당의 장안성과 비슷한 도성방어체제를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6]

문왕대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 속에는 군사조직의 새로운 편제 또한 포함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사료 A-1의 『신당서』 발해전 기사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장건장의 『渤海國記』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다. 장건장은 806년부터 866년까지 60년간 생존하였던 인물로, 833년 당 幽州府의 파견을 받고 발해국을 방문하였다가 835년에 유주로 돌아갔다. 이 시기는 발해 11대왕 대이진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건장이 기록한 군사제도인 8위가 대이진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

34) 〈표 2〉 渤海의 府·州·縣 관련기사

구분 / 지방제도	기 사	연 대	출 처
府	自南海府吐號浦	文王 40, 777	『續日本紀』 卷34, 光仁天皇 寶龜 8年
州	若忽州都督胥要德	文王 2, 739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1年
	行木底州刺史	文王 22, 758	『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玄菟州刺史	文王 23, 759	『續日本紀』 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縣	貴國使永寧縣丞王文矩	大彝震 19, 849	『續日本後記』 卷19, 仁明天皇 嘉祥 2年

위의 〈표 2〉를 통하여 부·주는 문왕대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현은 대이진 시기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849년에는 부·주·현 체제가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늦어도 무왕대에는 발해 지방통치구조의 근간이 되는 부주제의 초기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문왕대에 이르러서는 어엿한 제도로서 성립이 되고, 선왕대 이후는 그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동우, 앞의 글, 1996, pp.321~325).

35) 발해의 첫 도읍지였던 舊國은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동모산에 있는 城山子山城과 평지에 있는 永勝유적이 결합된 방식은 고구려식 방어체계로서 길림성 집안이나 평양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宋基豪, 「발해 城地의 조사와 연구」,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 1989, pp.454~456). 반면에 상경성, 중경성, 동경성은 모두 중국식인 평지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구조면에서 장안성을 본뜨고 있다.

36) 상경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pp.231~253 참고.

www.kci.go.kr

E. 12月 壬寅日, 渤海國에서 使臣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그 啓에 이르기를, "嵩璘이 아룁니다. ……삼가 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國·開國子 大昌泰 등을 使臣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日本後紀逸文』 卷7, 桓武天皇 延曆 17年(798): 발해 강왕 4年)

사료 E는 강왕 4년(798)에 일본으로 파견된 발해대사 대창태의 관직이 '좌웅위 도장'이었음을 알려준다. 문왕의 치세가 792년까지임을 상기해 볼 때, 좌웅위를 비롯한 8위는 최소한 강왕이전에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왕 사후에는 국왕 즉위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폐왕(793년 즉위)·성왕(794년 즉위)이 각각 1년간 재위를 하였고, 이후 강왕(795년)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폐왕 및 성왕 대에는 새로운 군사조직의 편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발해의 군사조직인 8위는 대이진대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문왕대의 전반적인 제도정비와 맞물려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왕대에는 당의 장안성을 본따 상경성·동경성을 건축하였으므로, 당과 비슷한 궁성 및 경성 방비의 역할을 지닌 군사조직이 이때에 수립되었을 것이다.

4. 8위의 편성과 역할

(1) 8위의 편성

본 장에서는 사료에 나타나는 발해의 무관직을 크게 무왕대, 문왕대, 문왕 이후의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당의 무관직 품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료 F는 무왕 10년(728)에 일본에 처음으로 파견된 발해사신에 관한 기사로서, 일본에 전해진 발해국서의 내용과 견일사의 무관직 명칭이 나타나 주목된다.

www.kci.go.kr

F. 正月 甲寅, (大武藝의 國書에 이르기를)……武藝가 列國을 주관하고, 諸蕃을 총괄하며, 高句麗의 옛땅을 회복하고 扶餘의 遺俗을 잇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야 옛날의 禮에 맞추어 善隣을 도모하고자 귀국(일본)에 사신으로 寧遠將軍郎將 高仁義, 遊將軍果毅都尉 德週, 別將捨航 등 24인을 외교문서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續日本紀』 卷10, 神龜 5년(728: 발해 무왕 10년)

발해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된 대사는 영원장군낭장 고인의였다. 영원장군은 당의 정5품하의 품계를 지니는 무산관의 명칭이다. 낭장(정5품상)은 당의 16위에 속하는 직사관으로 대장군(정3품), 장군(종3품), 중낭장(정4품하)의 아래에 있는 관직명이다. 한편 덕주는 유장군의 무산관과 과의도위라는 직사관을 지녔다. 당에서는 遊騎將軍(종5품상), 遊擊將軍(종5품하)의 무산관이 있으므로, 유장군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37] 과의도위와 별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부병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당에서는 전국의 道에 절충부를 두고, 책임자인 절충도위(정4품상~종5품하) 아래에 좌우의 과의도위(종5품하~종6품하)를 두었다. 별장(정7품하~종7품하)은 좌우과의도위 다음에 해당한다.

무왕대에 견일사가 지니는 직사관의 명칭은 낭장, 과의도위, 별장이었다. 따라서 무왕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당의 품계로 그 상한이 정5품상, 하한이 종7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낮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의도위, 별장과 같이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명이 나타난 점과, 이러한 직사관의 명칭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문왕 대의 견일사들은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보자.

G-1. 12月 戊辰日, 渤海使 己珎蒙 등이 朝政에 拜謁했다. 발해왕의 啓와 方物을 올렸는데, 그 啓에 이르기를, "欽茂가 아룁니다.……그래서 若忽州都督 胥要德 등을 使臣으로 삼아 廣業 등을 거느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발해 문왕 3년)

37) 유득공 저·송기호 역, 『발해고』, 홍익출판사, 2001, p.77.

www.kci.go.kr

G-2. 9月 丁亥日, 小野朝臣田守 등이 渤海로부터 도착하였다. 渤海大使 輔國大將軍 겸 將軍 行木底州刺史 겸 兵署少正[38] 開國公 揚承慶 이하 23인이 田守를 따라 來朝하니 越前國에 安置하였다(『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758): 발해 문왕 22년).

G-3. 10月 辛亥日, 渤海使臣 輔國大將軍 겸 將軍 玄菟州刺史 겸 押衙官[39] 開國公 高南申이 따라와서 來朝하였다(『續日本紀』 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759): 발해 문왕 23년).

사료 G-1, 2, 3은 공통적으로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와 같이 주의 명칭이 두 글자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신당서』 발해전에 기록된 62주의 명칭이 한 글자로 이루어진 것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40] 이를 놓고서 고구려식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41], 발해가 원활한 대일외교와 무역의 진흥을 위한 외교적 의도에서 고구려의 계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2]

문왕 대의 견일사는 행목저주자사, 현토주자사와 같이 일반 주를 관장하는 자사급의 지위계층과 사료 G-1의 '약홀주도독'처럼 도독주를 관할하는 도독급의 지위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43] 또한 사료 G-2, 3의 보국대장군은 당에서 정2품에 해당되는 무산관이고, 장군은 그 소속 위를 알 수 없으나 당의 품계로는 종3품에 해당된다.

문왕 대의 견일사들은 대체로 보국대장군의 무산관과 도독, 자사, 장군과 같은 직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문왕 시기의 견일사들은 당 품계로

38) 한편 병서소정과 관련해서는 兵署를 兵部 소속 관청으로 비정하여 무기를 관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少正은 그 職名의 하나였다는 견해(박시형, 1979, 앞의 책, p.133)와 병서소정을 당 衛尉寺 소속의 武器署 丞(종9품하)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39) 송기호는 당에서 압아관이 막부 직책의 하나이며, 절도사 營內의 일을 담당한다고 보았다(유득공 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82).

40) 예를 들어, 서경압록부에는 神州, 桓州, 豊州, 正州 등 4개의 주가 있었다(『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41) 유득공 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78.

42) 金鍾福, 앞의 논문, 2002, p.106.

43) 일반적으로 당의 지방관에는 도독(종2품~종3품), 자사(종3品~정4품하), 령(정5품상~종7품하)이 있었다.

www.kci.go.kr

그 상한이 정2품, 하한이 정4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문왕 26년(762) 이후부터는 당으로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 중에 무산계의 관직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문산계 관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對日交涉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44], 발해의 중앙정치제도가 이 시기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45]

762년 이후의 발해 무관직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료들이 참고가 된다.

> H-1. 12月 壬寅日, 渤海國에서 使臣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그 啓에 이르기를, "嵩璘이 아룁니다. ……삼가 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國·開國子 大昌泰 등을 使臣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日本後紀逸文』 卷7, 桓武天皇 延曆 17年(798): 발해 강왕 4년)
>
> H-2. 大使인 楊成規과 副使인 李興晟 등 20인이 入京하여 鴻臚館에 안치시켰다. 大使인 政堂省左允·正四品·慰軍大將軍·上鎭將軍 楊成規에게 紫金魚袋를 하사하고, 副使인 右猛賁衛少將·正五品인 李興晟에게도 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日本三代實錄』 卷21, 淸和天皇, 貞觀 14년(872): 발해 경왕 3年).
>
> H-3. 太祖 8年(925) 秋 9月 丙申日, 渤海의 將軍인 申德 등 500인이 來投하였다. 庚子日, 渤海의 禮部卿 大和鈞·均老司政 大元鈞·工部卿 大福謨·左右衛將軍 大審理 등이 民 1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12月 戊子日, 渤海의 左首衛小將 冒豆干·檢校開國男 朴漁 등이 民 1,0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高麗史』 卷1, 世家1).

사료 H-1의 위군대장군은 당에서 보이지 않는 무산관이다. 따라서 발해의 고유한 무산관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46] 좌웅위

---

44) 石井正敏 저·임상선 편역, 「日本交涉에서의 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1991, pp.295~298.

45) 宋基豪, 앞의 책, 1995, pp.108~114.

46) 당에서는 위군대장군이라는 무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漢字의 冠軍大將軍(정3품)은 나타난다. 따라서 위의 사료가 당의 무산관인 관군대장군을 잘못 쓴 오기일 수도 있다.

www.kci.go.kr

도장과 관련해서는 대창태가 좌웅위 낭장이라는 오류도 있었다.[47] '도장'의 지위를 놓고서는 장군의 아래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었다.[48] 그러나 '도장'이라는 명칭은 당·오대 시기에 있던 관호로써, 정식 관명이 아닌 호칭이었다. 참고로 819년 李師道가 이끌었던 번진은 이사도의 부하인 都知兵馬使 劉悟의 배반으로 멸망하였다. 이때 유오의 직함인 '도지병마사'는 '都將' 또는 '都頭'라고도 불렸으며, 元代의 胡三省이 "諸部의 軍을 총괄하는 자를 도장이라 한다"라는 언급도 참고가 된다.[49] 아울러 왕족인 대창태의 훈관이 당에서 제일 상층에 속하는 上柱國(정2품)이었고, 봉작 또한 開國子(정2품~종2품)임을 감안할 때 '도장'은 좌웅위를 총괄하는 대장군을 달리 표현한 호칭으로 보여진다.

사료 H-2를 살펴보면, 李興晟은 대현석 시기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으로 右猛賁衛 少將이었으며, 사료 H-3에서 고려로 내투한 冒豆干도 左首衛[50]小將이었다. 小將(少將)과 관련해서는 武寧軍에서 '軍中小將'의 직함을 지녔던 장보고가 참고된다.[51] 당시 소장이라는 호칭은 『당육전』과 『신당서』 병지 등에 구체적인 직명으로 보이지 않고, 개별 사례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소장이 구체적인 직명이었다기보다는 일정한 직위와 직책을 가진 군장들을 폭넓게 가리키는 범칭이었다고 볼 수 있다.[52] 발해의 좌맹분위 소장 이홍성은 정5품의 품계를 지닌 상급의 무관이었다. 그러므로 각 위의

47) 王承禮저·宋基豪역, 앞의 책, 1987, p.147; 한규철, 앞의 책, 1996, p.151.
48) 박시형, 앞의 책, 1979, p.133.
49) 『資治通鑑』 卷239, 唐紀55, 元和 10년 2월, p.7708; 渡邊孝, 「唐五代の都將に關する覺書」(上),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 史學38, 1992, pp.3~4; 정병준, 「李師道 蕃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2(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청아출판사, 2003, p.206 재인용.
50) 左首衛는 8위중 어느 한 위의 별칭인지, 左熊衛 左羆衛를 잘못 기록한 것인지, 또는 발해 최종기에 새로 생긴 어떤 위인지 확실치 않다(박시형, 앞의 책, 1979, p.133; 유득공 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94).
51) 소장과 관련해서는 정병준, 앞의 논문, 2003, pp.212~224 참고.
52) 정병준은 대장과 소장을 반드시 직명과 대응된 명칭이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사용된 상대적 범칭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장보고를 무녕절도사가 직접 지휘하는 牙軍의 소장. 즉 무녕군의 牙將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副十將 또는 同十將과 같은 소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정병준, 앞의 논문, 2003, pp.214~224 참고).

www.kci.go.kr

장군 아래에 있던 '郎將'급의 무관직을 지닌 인물들에게 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료 H-3의 신덕과 대심리는 각각 장군, 좌우위장군이라는 종3품의 직사관을 지녔다. 하지만 신덕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에 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문왕 26년(762) 이후에 나타나는 발해의 무관직은 좌웅위 도장, 우맹분위 소장과 같이 8위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앙관제, 지방제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 문왕대 후반에 8위제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발해 멸망 직전에 고려로 내투한 좌우위장군 대심리, 좌수위소장 모두간을 통해서 8위제는 멸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해 군사조직의 규모는 어떠하였을까. 8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고왕 대조영 시기부터 나타나는 발해의 군사력을 추정토록 하겠다.

I-1. 祚榮은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用兵을 잘하였으므로 靺鞨의 무리 및 高麗(고구려)의 餘黨이 점점 모여들었다. 聖曆(698~700)연간에 스스로 振國王에 올라 突厥에 使臣을 보내고 通交하였다. 그 땅은 營州 동쪽 2천리 밖에 있어 남쪽은 新羅와 서로 닿고, 越喜靺鞨에서 동북으로 黑水靺鞨까지 地方이 2천리에 編戶가 10여 만이며, 勝兵이 수만 명이다.(『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渤海靺鞨)

I-2. 이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震國王이라 부르며 突厥에 使者를 보내어 通交하였다. 땅은 사방 5천리에 戶가 10여 만이고 勝兵이 수만이며, 書契도 제법 알아서 扶餘·沃沮·弁韓·朝鮮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였다. ……아들 武藝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I-3. (則天)武后때에 契丹이 북쪽 변방을 침공하자, 高句麗의 別種인 大乞乞仲象이 靺鞨의 酋長 乞四比羽와 함께 遼東으로 달아나 高麗(고구려)의 옛 땅을 나누어 임금노릇을 하니, 武后가 장수를 파견하여 乞四比羽를 공격하여 죽였고, 乞乞仲象도 병들어 죽었다. 仲象의 아들 祚榮이 즉위하여 比羽의 民衆을 병합하였는데, 그 무리가 40만 인으로서 挹婁에 웅거하여 唐에 신속하였다.(『新五代史』 卷74, 四夷附錄, 渤海)

www.kci.go.kr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編戶'의 출현이 주목된다. 편호는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수취는 물론 병력충원에 근간이 되는 국가적 편제단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호의 증가는 영역의 확장, 인구 증가는 물론 군대수의 증가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료 I-1과 I-3은 건국초기의 상황으로서 영역은 2천리에 펼쳐져 있으며, 국가에 의해 편제되어진 호가 10여 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勝兵이 수만 명이며, 인구가 40여 만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53] 한편 사료 I-2의 사방 5천리는 발해 전성기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호가 10여 만이고 승병이 수만 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은 의구심이 간다. 즉 건국초기에 이미 편호가 10여 만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역확장과 인구증가를 이룬 전성기에 단순히 호가 10여 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점은 용납되기 쉽지 않으므로 오기로 보여 진다.

발해는 무왕 대무예 시기에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동북의 여러 말갈지역을 통합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경을 이루게 되었다.[54] 그러나 이후 흑수말갈과 당의 밀착에 따라 발해는 대외적인 위기에 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었다.[55] 발해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56]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발해의 군사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래의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 J.〔大門藝의 발언〕 지난날 高麗(고구려)의 全盛期에 强兵 30여 만으로 唐과 맞서서 복종하지 않다가, 唐兵이 한번 덮치매 땅을 쓴 듯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渤海의 무리가 高句麗의 몇 분의 일도 못되는데, 그런데도 唐을

53) 송기호는 40만 명의 인구수는 동모산에 정착하여 다시 주변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이 통합된 뒤의 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宋基豪, 『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1995, pp.75~76).

5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8, 聖德王, 20年 秋7月.

55) 김종복, 앞의 책, 2009, pp.104~133.

56) 『資治通鑑』 卷213, 唐紀29, 開元 20년 9月 乙巳; 『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 開元 20年; 『舊唐書』 卷8, 玄宗本紀, 開元 20年 9月 乙巳.

www.kci.go.kr

저버리려 하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舊唐書』 卷199, 列傳149, 渤海靺鞨)

사료 J는 대문예가 그의 형인 무왕에게 당과 맞서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 전성기 때의 强兵은 30여 만이었으며, 발해에서는 그 무리가 고구려에 비해 수배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발해의 무리가 고구려에 비하여 3분의 1로 표현되어 있다.[57]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의 군사력이 '强兵' 내지는 '士'로 표현되지만 발해에서는 단순히 '衆'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문예가 발해의 군사력이 당에 비해 쇠약함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은 당시 발해의 병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8] 따라서 당시 무왕 대의 군사력은 고구려 강병의 3분의 1인 10만 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발해의 인구수와 총군대수를 알려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발해 멸망기에 거란의 공격에 대항하여 발해의 수도를 방어하는 군사적 행동이 있어 주목된다.

K. 天贊 初에 홀로 騎兵 5백을 거느리고 老相軍 3만을 물리쳤다. 渤海를 함락시키고 東丹國으로 고쳤다.(『遼史』 卷73 第3 蕭敵魯條)

사료 K는 遼가 부여부를 함락시키고, 일주일 후에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을 포위하여 老相[59]이 이끄는 발해 수도방위군대 3만 명을 물리친 기사이다. 즉 발해 멸망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료로서, 궁성 및 경성을 방비하는 발해 수도방위부대의 규모가 약 3만 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7) 『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58) 방학봉은 '衆'을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칭되는 발해의 병력으로 파악한다(방학봉, 「발해유적과 발해군사문제에 관한 연구」, 『발해의 유물유적』 下, 천지출판사, 2003, pp.7~24).

59) '老相'을 발해 政堂省의 장관인 大內相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金恩國, 「渤海滅亡에 관한 재검토」, 『白山學報』 40, 1992, pp.113~115). 한편 발해가 멸망한지 1개월 후에 渤海老相은 東丹國의 右大相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遼史』 卷2 天顯 元年, 2月 丙午, "以皇弟迭剌爲左大相 渤海老相爲右大相 渤海司徒大素賢爲左次相 耶律羽之爲右次相").

www.kci.go.kr

그렇다면 발해에서는 이러한 군사조직의 병력충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진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27년 발해가 덕주를 과의도위로, 사항을 별장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발해에서도 부병제가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대부분이었으나[60],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당의 부병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당의 부병제는 원래 지방에서 행해지던 병제로서 宇文泰의 西魏와 北周에서 시작되어 수·당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전국에 600여개의 절충부를 설치하고 병부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각 府에는 折衝都尉, 左·右果毅都尉, 別將, 兵曹, 參軍 각 1인, 그리고 校尉 5인을 두었다. 각 절충부에는 다시 많은 支部가 있었으며, 이 지부에서 부병의 징병, 훈련, 동원 등의 병사를 맡아보았다. 부병을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적으로 균전제하의 농민들로 충원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군사훈련은 주로 농한기에 이루어졌다.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면 경사에 올라가 衛士로서 복무하고 다시 변방으로 전속되어 2년간 근무하였다.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行軍總管의 통할 하에 들어가 출정하였다. 부가 설립된 곳에서는 20세가 되면 복역을 시작하였고, 60세가 되면 퇴역하였다. 복무형태를 보면 평상시에는 耕田에 종사하였고 겨울에는 군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필요한 물품은 각 부에서 징발하여 자급자족하였다.[61]

이와 같은 당의 부병제에 관한 내용을 발해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가 어렵다. 하지만 발해의 지방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추측은 가능하다. 발해의 지방제도는『신당서』발해전의 기사를 통하여 전성기 때에 5경, 15부, 62주와 3개의 獨奏州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아래에는 100여개

60)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83; 崔茂藏, 앞의 책,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1~152; 姜華昌·沈仲衡, 앞의 논문, 1997, pp.314~316; 鈴木靖民 저·임상선 편역, 앞의 논문, 1991, pp.128~129; 유득공 저·송기호 역·앞의 책, 2001, p.77.

61) 김성한,『중국토지제도사연구-중세의 균전제』, 신서원, 1998; 金舞圭,「唐代 府兵制에 관한 一考察」,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金明姬,『中國 隋·唐史 硏究』, 國學資料院, 1998, pp.73~82.

www.kci.go.kr

의 현이 있어, 발해의 지방제도는 부·주·현의 3단계 행정관리체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는데, 이는 당의 道·府·州·縣제도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력충원과 관련하여 발해에서는 절충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발해에서는 5경 15부 62주 중에서 15부와 관련한 군사편제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발해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지방제도인 15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62] 먼저 아래의 사료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L-1. 扶餘의 옛 땅에는 扶餘府를 삼아서 항상 勁兵을 주둔시켜 契丹을 방어하며, 扶州·仙州 등 2州를 통치한다.(『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L-2. 上京臨潢府……定霸縣은 본래 扶餘府 强師縣이다. 太祖가 扶餘를 함락시켜 그 백성을 京西로 옮기고, 漢人과 더불어 살게하면서 땅을 나눠주고 농사케 하였다.(『遼史』 권37, 地理志 1, 上京道)

사료 L-1과 L-2는 부여부가 거란도의 경유지이면서 항상 勁兵을 두어 거란에 방비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부여부 아래에 强師縣이 있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발해가 이곳을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63] 따라서 부여부는 발해의 15부 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병력충원에 있어서도 부여부의 군사들은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번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원이 되어 상비군의 군사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15부 중에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해당되는 부에서는 어떻게 병력이 충원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5경 중의 하나인 서경 압록부에 관한 아래의 사료가 있어 참조된다.

---

62) 발해의 15부는 수도를 비롯한 5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해의 전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지방제도의 편제이다. 발해에서는 넓은 영역과 반농·반렵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적 상황에 맞추어 병력충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에서처럼 균전제하의 절충부를 설치하지 않고, 15부의 지방제도를 활용하여 병력동원을 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63) 宋基豪, 앞의 책, 1995, p.226.

www.kci.go.kr

M. ……이미 降伏한 郡縣에서 다시 叛亂이 일어나 盜賊들이 蜂起하였다. 阿古只는 康默記와 더불어 이들을 토벌하러 나섰는데, 鴨淥府에서 구원하러 온 賊 游騎7천을 만났다. (적의) 氣勢는 매우 높았다. 阿古只는 麾下의 精銳兵을 거느리고 곧바로 그 銳鋒을 꺾어 한번 싸워 물리쳤다.(『遼史』 卷73, 列傳3, 蕭阿古只)

사료 M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경 압록부에서 游騎 7천명의 군사가 구원하지만 실패하였음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압록부에서 구원하러 온 병사는 유기 7천명이므로, 압록부 전체에서는 그 이상의 병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경 압록부의 군사들은 수도에 있는 상경성과는 별도로 서경 관할에 있는 부에서 병력을 충원하여 군사방비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64] 참고로 당에서는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에 절충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65] 발해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끔 효율적인 군사적 징발을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의 부병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지 않고 수도를 비롯한 5경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충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15부 중에서 5경의 관할아래 있는 부에서는 부병제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져 5경지역에 번상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한편 오늘날의 연해주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 발해의 동북지역은 당에서처럼 모두 농민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렵·어로에 기인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지니므로 부병제의 실시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

64) 한편 남경에서도 구체적인 군사제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군사적 기능을 유추할 수는 있다. 즉 이 곳에 청해토성·북해토성 등으로 불리는 토성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토성 북쪽 남대천 右岸의 용전리산성과 左岸의 안곡산성, 그리고 평리의 거산성이 확인된다. 또한 이곳에서 활촉·창·칼 등이 발굴되었으며, 그 주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봉수대도 발견되고 있어 남경의 군사적 기능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하겠다(한규철, 앞의 책, 1996, p.174).

65) 전국 320개 주 가운데 절충부가 설치된 곳은 90주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長安, 洛陽, 太原에 집중되어있다. 특히 장안을 둘러싼 關內道에 260여개,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京兆府에 131개가 두어졌다. 결국 부병제도하의 절충부가 경기지역에 50% 이상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박한제, 「중국역대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출판부, 2000, pp.49~68).

www.kci.go.kr

N. 그 나라는 사방 2천리이며, 州, 縣, 館驛이 없으며, 곳곳에 村里가 있는데 모두 靺鞨部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으며, 土人은 적다. 모두 토인이 촌장이 되었으며, 大村에는 都督, 다음에는 刺史이며, 그 아래는 백성들이 모두 首領이라 부른다. 토지는 극도로 춥고, 水田이 마땅치 않다. 자못 풍속에 글을 안다.(『類聚國史』 卷193, 殊俗部 渤海上 延曆 15년(796) 4월 戊子)

사료 N은 발해를 견문한 일본인에 의한 소개 기사로서, 8세기 초에 말갈족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동북부의 연해주지역의 상황을 알려준다. 이 지역은 首領을 중심으로 부족제가 실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66] 따라서 이곳은 당의 부병제처럼 균전제하의 농민이 절충부에 속하면서, 징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농업에 중심을 두지 않고, 수렵·어로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67] 그러므로 이 지역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해당하는 부, 부여부와 같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부와는 다른 군사체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령을 중심으로 부족자치제가 이루어지며,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유사시에만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체제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2) 8위의 역할

8위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는 당의 각 衛·軍을 비교하여 그 임무를 추정한 김육불의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김육불은 10위설을 따르고 있지만 각 위의 역할을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의 견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6) 金鍾圓, 「渤海의 首領에 대하여—地方 統治 制度와 關聯하여—」, 『全海宗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79.

67) 당에서도 사회·경제적기반이 다른 유목민들을 통치하려 할 때 부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려 한점이 주목된다. 당태종은 來降하는 酋長 및 降戶(유목민)들을 당 방위체계에 편입하고자 할 때 부병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 즉 부병제의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서 부병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변경방위책인 '河南分治論'을 실시하려 했다. 그것은 降戶들을 故土로 돌려보내되 단, 그 부락을 갈라서 권위를 약하게 하고 세력을 나누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邊塞을 지키게 하는 통치방식이다(金羨珉, 「당태종의 對外膨脹政策」, 『황원구선생정년기념논총』, 1995).

www.kci.go.kr

〈표 3〉 金毓黻의 10衛에 대한 役割 비정

渤 海	唐	役割
左右猛賁衛	左右衛, 左右驍衛, 左右武衛, 左右威衛, 左右領軍衛	宮闕宿衛
左右熊衛・左右羆衛	左右金吾衛, 左右監門衛, 左右千牛衛	京城防備
南左右衛・北左右衛	左右羽林軍, 左右龍武軍, 左右神策軍	禁軍

먼저, 좌우맹분위는 당의 좌우위, 좌우효위, 좌우무위, 좌우위위, 좌우령군위로 비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료 G를 통하여 좌우위가 궁궐숙위를 행하고, 좌우효위・좌우무위・좌우위위・좌우령군위가 같은 역할로 수행하였음을 근거한 것이다.

> G. 左右衛에는 從2品의 上將軍 각 1人과 正三品의 大將軍 각 1人, 從三品의 將軍 각 2人이 있다. 宮禁宿衛를 管掌한다.
> 左右驍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 左右武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 左右威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 左右領軍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좌우맹분위는 '猛賁'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날래고 용감한 최정예의 부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료서술의 순서상 맨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부대 규모와 비중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金代 여진사회의 통치조직이었던 猛安謀克이 발해의 맹분위와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68]

68) 맹안모극제의 기원을 살펴보면 猛安은 원래 여진족사회에서 '千'의 뜻으로서 '千戶' 또는 '千戶長'을 의미했는데 대체로 여진사회에서 전시에 군대 지휘자를 말한다. 그리고 謀克은 '族長', '鄕里', '族'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진사회에서는 字董이라고 하는 部長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지연적 자치집단이 戶를 단위로 하는 행정 및 군사조직단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여진족은 300호를 1謀克部, 10謀克部를 1猛安部로 하는 행정단위를 정하고 다시 1謀克部에서 100명의 장정을 징집하여 1謀克軍 그리고 10謀克軍

www.kci.go.kr

다음으로 좌우웅위와 좌우비위를 살펴보자. 먼저 '熊'·'羆'와 관련된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 H-1. 거주는 대부분 산과 강가에 의지하며, 우두머리를 大莫弗瞞咄이라고 한다. 그 나라 남쪽에 從太山이 있는데, 중국말로 太皇이라는 뜻이다. 풍속에 (그 산을) 매우 숭상하고 무서워하여 사람들이 산 위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못하고, 그 산을 경유하는 사람은 소변이나 대변을 물건에다 담아가지고 간다. 산 위에는 곰(熊), 큰곰(羆), 표범, 이리가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北史』 卷94 列傳82, 勿吉國)
>
> H-2. 거주는 대부분 산과 강에 의지하며, 우두머리를 大莫弗瞞咄이라고 한다. 東夷 가운데에서는 强國이다. 徒太山이라는 산이 있어 풍속에 (그 산을) 매우 숭상하고 두려워한다. 산 위에는 곰(熊), 큰곰(羆), 표범, 이리 등이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隋書』 卷81 列傳46, 靺鞨)

사료 H-1, H-2는 같은 내용의 사료로서, 從太山과 徒太山은 태백산의 異音으로 오늘날의 백두산을 의미한다.[69] 또한 熊·羆의 곰과 豹·狼의 이리 떼는 만주지역의 산악지대나 초원지대에서 살던 가장 무서운 짐승으로, 말갈족은 곰과 이리를 그들의 토템으로 섬겨 이들을 죽이지 않고 숭배하였으며, 또 이들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70] 이러한

을 1猛安軍으로 하는 군사제도를 수립하였다(이동복, 「金初 女眞社會의 構成」, 『역사학보』 106집, 역사학회, 1985, pp.224~225). 이러한 제도는 여진족 내지는 그 이전 말갈의 부족제도 및 관습에 영향을 받아 조직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발해 대다수의 주민이 말갈이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금의 맹안군 명칭이 발해의 군사조직 명칭(左右猛賁衛)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69) 퉁구스계의 종족들이 산을 숭배하여 徒太라고 불렀는데, 『新唐書』 黑水靺鞨傳을 보면 '太白山'을 徒太山이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唐書』 高句麗傳이나 『通典』 高句麗條에 나오는 白山은 오늘날의 白頭山을 의미한다(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 2, 1988, pp.208~209).

70) 이와 관련하여 단군신화에서도 곰은 시조모의 역할이었다. 동물은 단순히 인간과 동화되기만 할 뿐 아니라, 동물 자체가 신격화될 수도 있으며, 신에 대한 사자, 인간을 위한 수호령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9, p.22). 참고로 이러한 동물에 대한 영혼관은 이미 수렵·채집의 경제단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는 현재에도 전 시베리아에 펴져 있는 종족들간에 행해지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사냥제의에 아직까지 그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이정재, 앞의 책, 1997, p.27).

www.kci.go.kr

수렵사회의 물길 내지 말갈에서는 곰을 신성시하는 습속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발해의 군사제도에 영향을 주어 웅위·비위와 같은 군사조직의 명칭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좌우웅위와 좌우비위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좌우맹분위는 당의 좌우위, 좌우효위, 좌우무위, 좌우위위, 좌우령군위로 비정되어 궁궐에 숙위를 행하는 정예부대였었다. 따라서 당의 16위 중에서 이를 제외한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가 발해의 좌우웅위, 좌우비위에 비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를 참조하여 발해의 좌우웅위, 좌우비위의 역할을 추정코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들을 살펴보자.

I-1. 左右金吾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宮中 및 京城의 巡警과 烽候·道路·水草의 일을 管掌한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I-2. 左右監門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諸門의 禁衛 및 門籍을 管掌한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I-3. 顯宗 22년(1031) 丁卯일에 渤海監門軍 大道行郎 등 14인이 來投하였다.(『高麗史』 卷5, 世家5)

I-4. 德宗 2년(1033) 癸巳일에 渤海監門隊正 奇叱火 등 19인이 來投하였다.(『高麗史』 卷5, 世家5)

I-5. 左右千牛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侍衛 및 供御와 兵仗을 管掌한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사료 I-1은 당의 금오위가 궁성 및 경성을 巡警하였음을 알려준다. 사료 I-2는 당의 감문위가 궁성 내외의 諸門을 禁衛하는 임무를 지닌 것을 알려준다. 사료 I-3, 4는 '발해 감문군', '발해 감문대정'의 표현이 나타난 『고려사』 기사이다. 두 사료는 고려 顯宗 22년(1031)에 고려로 내투한 발해 감문군 대도행랑 등 14인과 德宗 2년(1033)에 내투한 발해 감문대정 기질화

www.kci.go.kr

등 19인의 내투관련 기사이다. 이 시기는 발해가 멸망한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난 후로서, 발해왕손 大延琳이 興遼國을 세워(1029)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던 바로 직후의 시기였다.[71] 따라서 위에 나타난 발해 감문군 내지 감문대정의 관직을 지녔던 인물들은 흥료국에 속한 발해유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문군·감문대정의 관직은 遼가 발해인의 회유를 위해 수여했던 관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72], 발해유민들이 그와 같은 관직의 역할을 흥료국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멸망 이전에도 감문위와 같은 역할은 행해졌으리라 추정된다. 사료 I-5는 천우위가 왕을 시위하고 황제에게 진상되는 물건과 병기를 관장하는 일을 맡았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당의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발해에서 좌우웅위·좌우비위가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당의 군사제도에 영향을 받았던 발해에서도 당과 비슷한 궁성 및 경성의 방비체제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73]

마지막으로 남좌우위·북좌우위를 살펴보겠다. 이들 위에 관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료 A-1과 A-3을 접목시켜 발해의 남좌우위·북좌우위가 당의 금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추정코자 한다.[74] 우선 사료 A-1의 좌우맹분·웅위·비위가 사료 A-3의 좌우삼군에 해당된다면, 사료 A-1의 남좌우위, 북좌우위는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으로

71) 이 시기부터 거란의 관직을 가진 발해인의 내투, 거란·해 등 타민족과 함께 고려로 내투하는 사례 등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거란의 지배하에 있던 발해인들이 거란에 불만을 갖고 있던 타민족들을 규합하여 고려로 내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硏究』, 國學資料院, 1996, pp.102~106 ; 韓圭哲,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994, pp.260~267).

72) 朴玉杰, 앞의 책, 1996, p.99.

73) 참고로 발해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따 수축하였으며, 도성의 수비나 관서의 배치도 장안성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가 있다(金鍾福, 앞의 논문, 2003, pp.131~134). 이를 통해 궁성 및 경성을 방비하는 발해의 군사조직들 또한 당의 군사조직 역할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74) 당에서의 금군의 역할은 左右羽林軍·左右龍武軍·左右神武軍·左右神策軍 등이 수행하였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www.kci.go.kr

연결시킬 수 있다. 당의 신책군은 황제직속의 근위군단의 성격을 지니며 좌우 2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75] 따라서 발해에서는 남좌우위와 북좌우위가 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맹분위·웅위·비위가 궁성의 숙위를 담당하는 데 대해서, 남북의 좌우위가 각기 남위금병·북위금병을 관장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다.[76] 漢代에도 황제의 친위군인 南軍과 北軍이 존재하였다.[77] 그러므로 발해에서도 친위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남좌우위·북좌우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1960년 4월에 상경성에서 발견된 銅印에 새겨진 '天門軍'이 이와 관련 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78] 이것은 황제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왕 직속의 친위부대인 금군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발해의 남좌우위와 북좌우위가 당의 좌우신책군에 비정되어 국왕의 정예부대인 친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발해의 군사제도가 8위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다. 그것은 건국이전 속말말갈의 추장인 돌지계가 이끈 8部, 그의 아들인 이근행이 이끈 8營, 거란 8部 등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발해는 말갈의

75) 당의 좌우신책군은 원래 변경을 지키는 지방병이었다. 당 玄宗대(713~756)에 河西節度使 哥舒翰은 황하 九曲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神策軍이라고 했다. 당 숙종대(757~762)에는 衛伯玉을 神策軍節度使로 임명하고 陝州를 지키게 하였다. 대종대(763~779)에 이르러 토번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환관이었던 魚朝思는 신책군을 불러들여 천자의 금군으로 있게 하였다. 당 덕종대(780~805)에 이르러 정식으로 좌우신책군으로 나누었다(李殿福·孫玉良 저·정진헌·서길수 옮김, 『渤海國』, 고구려연구회, 1987, pp.40~41).

76) 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77) 『中國官制大辭典』下, 黑龍江人民出版社, p.984, "漢代屯衛京城的禁衛軍 南軍以衛尉統率掌管宮城門內的兵 以守衛皇宮 北軍以中尉統率 掌管京城門內的兵 以守衛京城." 또한 後漢시대의 도성은 낙양으로서 南宮과 北宮의 구조로 되어 있다(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 문정희·임대희 옮김,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pp.49~53).

78) 宋基豪, 앞의 책, 1995, p.155.

www.kci.go.kr

토착적인 8영 내지는 8부의 요소 위에 당의 위제를 변용하여 군사조직인 8위를 편성하였을 것이다.

8위제의 성립시기는 798년 강왕 대에 나타난 좌웅위도장 대창태를 통하여 적어도 그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왕 사후에는 국왕 즉위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폐왕·성왕이 각각 1년간 재위를 하였고, 이후 강왕이 즉위하였다. 폐왕 및 성왕대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새로운 군사조직의 편제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체제정비가 이루어진 문왕대에 8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8위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해의 무관직을 크게 무왕대, 문왕대, 문왕 이후의 3시기로 나누어 당의 무관직 품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왕대에 견일사가 지니는 직사관의 명칭은 낭장, 과의도위, 별장이었다. 이것은 당 품계로 그 상한이 정5품상, 하한이 종7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낮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과의도위, 별장과 같이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명이 나타난 점과, 이러한 직사관의 명칭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왕 대의 견일사들은 대체로 보국대장군의 무산관과 도독, 자사, 장군과 같은 직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당 품계로 그 상한이 정2품, 하한이 정4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지위를 지녔다. 문왕 26년(762) 이후부터는 당으로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 중에 무산계의 관직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문산계 관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발해의 대일교섭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발해의 중앙정치제도가 이 시기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왕대 이후부터는 8위에 해당하는 무관직 명칭이 사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都將'이라는 호칭은 제부의 군을 총괄하는 의미로써 대장군 급에 해당되는 관호로 파악하였다. 또한 小將(少將)이란 호칭 또한 상황에 따라 사용된 상대적 범칭으로써, 본고에서는 정5품의 품계를 지닌 장군 아래에 있던 낭장 급의 인물을 부를 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발해 군사조직의 규모는 건국초기 勝兵 수만 명과 10여만 편호로 이루어지다가 영역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www.kci.go.kr

또한 발해 멸망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老相軍의 존재를 통하여 수도인 상경성을 방어하는 수도방위부대의 군사력이 3만 명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병력충원은 발해의 지방제도인 15부와 당의 부병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수도를 비롯한 5경 지역에 해당되는 부에서는 군사들이 각 관할 내에서 충원되어 제한적인 부병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군사적 중요도가 높은 변방의 접경지역에서는 상비군을 주둔시켰을 것으로 보았다. 그 이외의 동북지역에서는 수렵·어로에 해당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령을 중심으로 부족자치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8위의 역할은 당 군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추정하였다. 좌우맹분위는 궁궐숙위를, 좌우웅위·좌우비위는 경성의 방어임무를, 남좌우위·북좌우위는 금군의 역할을 하였음을 추정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1. 3. 30,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발해, 말갈족, 8위, 당, 무왕, 문왕, 좌우맹분위, 좌우웅위, 좌우비위, 남북좌우위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Eight Guards System of *Balhae*

Kang, Sung-bong

Balhae(渤海) corresponds to a stretch of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part of Chin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in modern times. It took on the socioeconomic character based on farming combined with hunting, and fishing. Also, a majority of ruled class was a multiracial country which was composed of *malgal* tribes(靺鞨族). Thus, the rulers of *Balhae* tried to establish the military system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to secure stable ruling system. Its Eight Guards System, therefore, can be said to have resulted from the social organization based on the economic life of combining farming with hunting which was projected as it was on the military system. A study on the system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character of the society closely.

Chapter 2 reexamined ten and eight guards theories related to the military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Balhae* had organized Eight Guards(8衛), the military system, by transforming *Tang*'s(唐) guards system besides the elements such as *malgal's* eight native camps or parts.

Chapter 3 analysed the ambassadors dispatched to Tang who secured military officer position from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Muwang*(武王). Also, it explored the system improved overall in central political machinery and local system in the period of *Munwang*(文王).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Eight Guards System, as *Balhae*'s military system, was formed in the period.

Chapter 4 first divided *Balhae*'s military officer position broadly into the ones of three periods and made a comparative study with *Tang*'s military officer position

www.kci.go.kr

ranks. Also, it briefly examined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which enabled me to presume the scale of *Balhae*'s military organization. Regarding the supplement of military force it explained mainly the Fifteen Parts(15府) as *Balhae*'s local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ree types of military systems. On the other h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ang's military system allowed me to presume the role of the Eight Guards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in *Balhae* the Left and Right Fierce and Great Guards(左右猛賁衛) kept the royal palace all night, that the Left and Right Bear Guards(左右熊衛) and the Left and Right Big Bear Guards(左右羆衛) fulfilled the duty of defending the capital, and that the Southern and Northern Left and Right Guards(南北左右衛) played the role as royal guards.

Key Words : *Balhae*(渤海), *Malgal* Tribes(靺鞨族), Eight Guards(8衛), *Tang's*(唐), *Muwang*(武王), *Munwang*(文王), the Left and Right Fierce and Great Guards(左右猛賁衛), the Left and Right Bear Guards(左右熊衛), the Left and Right Big Bear Guards(左右羆衛), the Southern and Northern Left and Right Guards(南北左右衛)

www.kci.go.kr